

풍패지관 서익헌 해체보수 공사 '꼼꼼히'

전주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현 약 10% 공정률

전주시는 보물 제583호인 풍패지관 서익헌의 원형보존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0여년 전 보수했던 서익헌은 기둥이 기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뒤틀리는 등 전면 해체보수가 필요했다.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풍패지관 해체보수공사는 현재 약 1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보수공사는 지난 2015~16년 정밀한 전진단용역 결과 기둥이 시계방향으로 기울고 목구조가 손상 파손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기둥이상으로 전체해체가 결정돼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지붕해체가 완료된후에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 전문회의를 통해 정확한 부재의 교체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목부재의 해체 및 문화재 원형보존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에 한해 공사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해체보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사현장을 공개하는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관람은 전화로 사전예약한 선착순 40명에 한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전화예약은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063-281-5361, 5139, 5127)로 하면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보수공사를 철저한 고증과 전문가의 견 견 수렴 등을 거쳐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문화재 수리현장을 공개하는 수리현장 공개의 날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보물 제583호인 풍패지관 서익헌의 원형보존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 필리핀으로 수출된다

필리핀 BMFF 대표단, 효자도서관·건지산 숲속 작은도서관 벤치마킹

책 읽는 도시인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이 필리핀에 전수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필리핀의 BMFF 도서관 관계자 11명이 도서관 정책과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BMFF(Be My Friend Foundation INC.)는 필리핀의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취지로 한국기업과 선교사, 필리핀 지식인, 경제인들이

협력해 만든 법인으로 장학사업과 리더십 프로그램, 독서운동 등을 위해 협업을 단체다. BMFF의 이번 방문은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의 초청으로 필리핀과 한국의 독서운동 지도자들 간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성사됐다. 방문단은 먼저 효자도서관을 방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시설 및 차별화된 운영기법으로 변화를 꾀하는 전주시립도서관의 독

서정책을 배웠다. 또한 이들은, 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나무토막 울타리 만들기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용자 전주시 완산도서관장은 "필리핀에 전주시 도서관의 시설 및 우수 정책을 알리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독서운동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혁신도시 입주인 환경정화활동

전북혁신도시 입주주민들로 구성된 혁신도시 약취 모니터링단 20명과 진리북도·전주시·완주군 환경부서 관계자들을 포함한 30여명은 혁신도시 주변 기지제와 소공원, 산책로 등에 겨우내 쌓여있던 쓰레기를 정비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에 맞춰 혁신도시 인근 가족분뇨 악취배출사업장 7개소에도 물청소를 하고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혁신도시 약취 모니터링단은 혁신도시 아파트 16개 단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달부터 약취 시간대와 약취종류, 약취강도 등 매일 약취 관능 검사 측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김제 용지면 축산발집지역에서 시작된 가족분뇨 냄새가 혁신도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가족분뇨 악취발생 사례는 총 15건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 등 인접 시군에서는 모니터링의 신고에 따라 가족분뇨와 가족분뇨처리장에 미생물 악취제거제 살포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폭력과 편견없는 직장만들기'

전북대병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난 4일 분관 모악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제1차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내일을 위한 Change'를 주제로 한 교육에서는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혜영 소장은 편견과 고정관념, 폭력의 민감성 키우기, 4대 폭력 바로알기(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실



천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대처방안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우수사례 학습

서서울호수공원·북서울 꿈의 숲 등 방문 견학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30여명과 행정TF팀 50여명이 서서울호수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동탄 호수공원 등 공원 조성사례를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전주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이다. 서서울호수공원은 정수장을 물과 재산을 테마로 조성한 친환경공원이며 북서울 꿈의 숲은 놀이시설이 있던 자리에 벚꽃길과 단풍길 등의 생태적

조경공간, 대형연못, 폭포 그리고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이다. 또, 동탄 호수공원의 경우 기존 산책자수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수변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공원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들 3개 공원을 설계한 최현현 전주시 총괄조경가로 부터 각각의 공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성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고민과 해결과정, 공원 조성 후 아름답게 변화된 공원의 환경과 생태적 의미를 들어다녔다. 이날, 추진위와 행정TF팀은 향후 혁신도시 기지제 생태공원과 아중 호수공원, 덕진 전통정원 등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벤치마킹했다. 정명운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전북대 총장 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A 교수 영장 기각

법원 "피의자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개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박우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일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10월 당시 현직이었던 이남호 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생산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비리 내사설'로 불거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학 내부

게시판에 공개되면서 이 총장은 최종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려나 낙선했다.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1월 교수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킨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A교수는 지난 4개월간 경찰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구속수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지원자녀연령 확대 등

한부모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올해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확대사항은 아동양육비, 전세임대주택 등이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되었고 금액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지는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

원), 학용품비(년 5만4,100원)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지원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영수 덕진구청장은 "매년 한부모 가정은 늘어나는 추세고 아직도 많은 편견속에서 어려운 현실을 견뎌나가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단 한 가구의 위기가정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알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13종·38대 신규 구입

전주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서 농업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는 올해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해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농기계 13종, 38대를 신규 구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센터가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확보한 예산 1억5000만원으로 구입했다. 새로 구입한 주요 농기계는 △승용제초기 △보행관리기 △잔가지파쇄기 △유기질퇴비살포기 등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교통안전 현장 간담회

전북경찰청이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교통안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강황수 제2부장, 교통안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년간 봄 행락철 교통사망사고 발생 빈도 및 사고 요인을 분석 보고하고 예방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추돌사고와 관광버스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 예방책을 토론했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책으로 행락차 주변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용하고,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다각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위해 알람순찰, VMS홍보강화,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실시한다. 정진영 9지구대장은 "봄철은 졸음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계절로, 운전자 스스로 운전 중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고 예방법"이라며 "동승자 보호를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관광버스·승용차 충돌 발생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5일 오후 12시 15분경 전북 전주시 서원산동 모 교차로에서 A모(62)씨가 운전하던 45인승 전세버스와 B모(77)씨가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승객 12명과 B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 탑승객은 전주·김제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등으로 무주 태권도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익산시 자전거 절도 30대 달미

대학교 기숙사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3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2시 30분경 익산시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 정중정자를 해놓은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서 지갑 훔친 40대 검거

카페 화장실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7)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11시 14분경 전주 완산구 흥산남로 한 카페 화장실에서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반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